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발표

- 2025년 6월 17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을 발표함. 최근 한국 경제의 저 성장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존의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 성장이 아닌 지속적이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창조 기반의 '진짜성장'을 목표로 제시함.
 - 성장 방식을 기존 '모방과 추격'에서 선진국 방식의 '창조와 선도'로 전환
- 이에 따라 AI 3대 강국 진입,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3·3·5 비전'), 3대 전략과 5대 과제를 설정함.
- 이에 더해 규제·금융·행정·교육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고자 함.
 - 규제개혁: 신산업·혁신기업 성장 저해요인 해소, 메가샌드박스 등 신속 규제혁신
 - 금융개혁: 국민펀드 등 생산적 금융, 가계부채 관리, 중소벤처금융 활성화
 - 행정개혁: 공공기관 기능 재정비, 낙하산 인사 근절, 전략적 재정투자 강화
 - 교육개혁: AI·디지털 문해력·창의력 강화, 지역거점대학 육성, 열린 직업교육체계 구축
 - 사회안전망 강화: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인권·행복추구권 보장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주요내용

3대 전략	5대 과제	세부내용
기술주도 성장	1. AI 혁신생태계 구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1) AI 3대 강국 진입: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유치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유망기업 및 융합산업을 육성해 AI 3개 강국으로 도약 2) 미래전략산업 발굴·육성: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산업, 방위·우주·항공산업 등 분야에서 기존 주력산업에 버금가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2.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1) 에너지 전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 구조 대전환 추진,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2) 산업 업그레이드: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 위기 극복 지원, 반도체와 조선업 등 경쟁우위 산업 초격차 확보, AI 산업 융합(AI-X) 확대
모두의 성장	3.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1) 중소벤처 혁신: 중소벤처·스타트업 인프라 및 제도 개혁, 규제개혁으로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시장 확대 강화 등 2)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안정적 R&D 예산 마련, 국가 R&D 거버넌스 개혁,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지역 R&D 역량 증진 등
	4. 지역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1)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자치의 강화 및 생활문화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성장 잠재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 추진 2) 국토공간혁신을 위한 과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제 완성(국회,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추진),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지역교육·생활·문화환경 개선, 지역관광 활성화, 농어촌지역 발전
공정한 성장	5.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1) 공정과 상생의 시장경제 생태계 구축: 대·중소기업 생태계 개선(불공정 거래 관행 등 해소),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공정과 상생의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디지털 플랫폼 입점 업체, 배달 시장 등),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 공정하고 생산적인 금융과 합리적 지배구조 확산: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개선, 부동산 금융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

출처: 국정기획위원회(2025.06.17.)

세계 경제 동향

● 미국 6월 기준금리 동결 | 2025-06-18 미국 연방준비제도; 조선일보

- 2025년 6월 1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존과 동일한 4.25~4.5%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미국 기준금리는 2024년 12월 인하 이후 4차례 연속 동결
- 최근 3개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2.4%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과 물가상승 가능성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결정함.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용시장 불안과 경기하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힘.
 - '25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 1.4%로 하향 조정 ('25년 3월 전망 1.7%)
 - '25년 실업률 전망 4.5%로 상향 조정 ('25년 3월 전망 4.4%)
 - '25년 물가상승률 전망 3.0%로 상향 조정 ('25년 3월 전망 2.7%)
- '25년 5월 2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2.50%)하였으나,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2.0%p를 유지함. 국내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차이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의 우려로 인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짐.

■ 2022년 1월~2025년 5월 한국·미국 기준금리 ■



국내 경제 동향

○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 2025-06-18 한국은행

- 2025년 6월 18일 한국은행은 2025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및 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연 2회(6월, 12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물가 상황 및 향후 물가 흐름과 2025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 및 분석
- (2025년 상반기 물가 상황)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4년 하반기 평균 1.8%, 2025년 상반기(1~5월 기준) 평균 2.1%로 목표 수준인 2%대 근방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산물 출하 확대, 정부의 가격안정 노력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0% 초반대로 둔화됨. 반면, 공업제품(석유류 제외) 가격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석유류 가격은 연초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4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
-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전체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함. 다만, COVID-19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높아져 있고, 특히 생활물가*가 비교적 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취약 계층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생활물가: 식료품·에너지·교통·공공요금·주거비 등의 필수 생활비 항목으로 구성된 물가지수

- COVID-19 이후 공급망 차질, 러-우 전쟁, 기상여건 악화 등 대내외 공급충격이 중첩되면서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비해 높은 상승률 기록
- 한국은행은 최근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생활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2019~25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농림수산성 2024년 농지중간관리기구 실적 공표 | 2025-06-11 농림수산성

- 일본 농림수산성은 6월 11일 2024년 농업 경영체 농지 집적 상황과 농지중간관리기구 실적을 발표함(주간브리프 2024 Vol.25.).
 - 농지중간관리기구는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를 모으고 배분함으로써 경영 규모 확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정촌(市町村), 농업 단체 등이 출자해 조직하는 법인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현 내 1개소에 한해 설치
 - 농지중간관리기구는 개정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계획'에 근거해, 소유자 불명 농지 및 유휴농지를 포함하여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차입하고, 농업 경영체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지의 집적·집약화를 추진
 - 2024년 농업 경영체 농지 집적 면적은 전년 대비 3.4만ha 증가한 약 263만ha로 전체 경작지 면적의 61.5%를 기록, 2013년도 이후 증가한 농지 집적 면적(41.9만 ha) 중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의한 집적 면적은 약 22.5만ha(54%)로 나타남.
 - 2024년 농업 경영체 농지 집적률은 61.5%로 전년 대비 1.1%p 증가
 - 농업 경영체 농지 집적 면적: ('13) 221만ha→('15) 235만ha→('17) 245만ha→('19) 251만ha→('21) 256만ha→('23) 259만ha→('24) 263만ha
- *농지 집적률 = 농지 집적 면적/전체 경작지 면적
- 농림수산성은 2030년까지 농업 경영체 대상 농지 집적률 70% 달성을 농지중간관리기구 핵심성과지표(KPI) 목표로 설정

○ 식량농업기구(FAO)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영향 분석 | 2025-06-12 유엔 식량농업기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가 가금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구조, 경제, 국제 무역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 HPAI는 2021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
 - 2022~2024년 동안 수억 마리의 가금류가 예방적으로 살처분되었으며, 이는 세계 가금류 공급과 무역에 큰 타격을 주었음.
 - 특히, 철새 경로를 따라 변종이 확산되어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침.
- HPAI 확산은 산란계 및 육계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생산 구조에 영향을 미침.
 - 닭 사육 기간이 짧고 폐쇄형 사육 시스템이 많은 육계에 비해 산란계가 더 큰 타격을 받음. 미국에서는 2022년 이후 1억 7,30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살처분함.
 - 이에 따라 달걀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달걀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였음.
 - 태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는 가금류 생산 기반을 산업형 대규모 농장에서 분산형 또는 지역 기반(Zone-based)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또한, 농가의 소득 손실,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 소비자의 물가 부담 등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침.
 - (농가 및 산업체) 살처분, 방역 비용, 생산 중단에 따른 직접 소득 손실
 - (정부 재정 부담) 살처분 보상금, 방역 및 보건 예산 증가. 미국의 경우, 방역 및 보상 등에 2024년까지 14억 달러 이상을 지출함.
 - (소비자 가격 상승) 계란·가금육 가격 급등
- HPAI의 확산은 일부 국가의 수입 중단 조치로 이어지며, 수출국의 시장 접근 제한과 무역 신뢰도 저하 등 국제 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EU, 중국은 HPAI 발생국의 모든 가금류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고, 한국, 칠레 등 약 20여개 국은 브라질산 가금류 제품 수입을 중단함.
 - 브라질은 상업 농장에서의 첫 HPAI 발병 이후 EU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일시 중단되며, 수출국으로서의 신뢰와 지위가 손상됨.
 - 일부 국가는 지역 기반(Zone-based) 수출 허용 방식을 도입해 무역 차단 최소화를 시도함.
 - 가금류 무역은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높은 편이나, 지속적인 HPAI의 발생은 수입국의 신뢰를 저하시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HPAI 감염이 낮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등 시장 및 무역 구조의 변화가 나타남.

국내 농업·농정 동향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 ■ 2025-06-15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5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신규 도입 품목 4개를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현재 76개에서 2026년 78개,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할 것을 발표함.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 처음 도입됨.
 - 도입 초기에는 사과, 배 등 일부 과수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재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됨.
 -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지급건수가 2001년 410건에서 2023년 215,368건으로 증가함.
- 신규 도입 품목은 지자체 수요조사와 보험화 가능성 등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2026년에는 노지 오이와 시설 깻잎이, 2027년에는 체리와 들깨가 신규 도입될 예정임.
 - 이번 신규 품목 추가는 발작물, 시설 채소 등 기존에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품목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려는 정책이며,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선정된 품목은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수요를 제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 기간 내 지역 농업협동조합 방문 등을 통해 가입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

연도별	대상 품목(품종/작형)	품목 수 누계
2001	사과, 배	2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6
2006	뽕은감	7
2007	밤, 참다래, 자두	10
2008	콩, 양파, 고추, 시설(수박)	14
2009	감자(봄감자/고랭지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20
2010	시설(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25
2011	시설(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30
2012	인삼, 시설(멜론, 파프리카), 오디, 차	35
2013	시설(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40
2014	시설(배추, 가지, 파)	43
2015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46
2016	밀, 시설(미나리), 양배추, 오미자	50
2017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53
2018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메밀, 브로콜리	57
2019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월동), 당근(고랭지/가을·월동), 단호박, 파, 벼(조사료용), 옥수수(조사료용)	62
2020	호두, 팔, 시금치, 보리, 살구	67
2022	배추(가을배추)	67
2023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70
2024	두릅, 블루베리, 수박	73
2025	생강, 참깨, 녹두	76
2026(예정)	노지 오이, 시설 깻잎	78
2027(예정)	체리, 들깨	80